

경향신문

미래 '초연결 사회', 인간의 존재 의미와 역할을 묻다...양아치 개인전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
2020. 11.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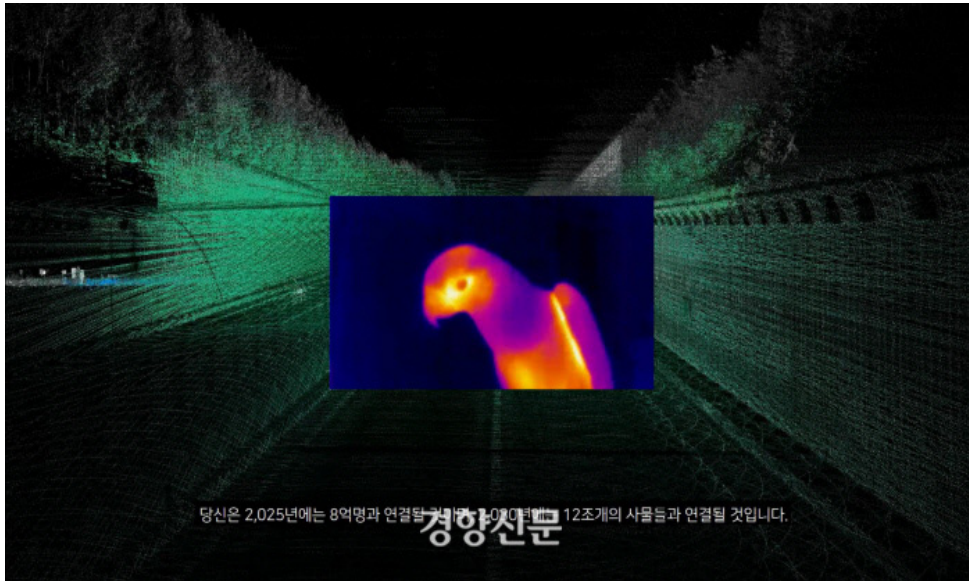
- 바라캇 컨템포러리 '갤럭시 익스프레스' 전, 12월 13일까지
- 인체와 기계·사물이 하나로 연결된 '초연결 사회' 선보여
- “가장 아름다운 손은 ‘일하는 손’에서 ‘기도하는 손’으로...”



주목 받는 미디어 아티스트 양아치가 개인전 '갤럭시 익스프레스'를 바라캇 컨템포러리에서 열고 있다.
사진은 양아치의 '사르트르, 외사시, 10개의 눈, 사물'(2020, 황동 주물·자석·광물, 12×15×17cm). 바라캇 컨템포러리 제공.

만약 10개, 100개의 눈을 지닌 존재가 있다면? 아마 지금의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지각과 인지방식, 행동양식을 가질 것이다.

불교의 천수관음보살은 1000개의 손마다 눈을 지녀 눈이 모두 1000개다.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모두 찾아내 구제하는 자비의 보살로 숭배의 대상이다. 인간으로선 상상조차 힘든 1000개로 대표되는 그 많은 눈과 손, 즉 감각 기관은 곧 자비의 상징이다.



양아치의 '갤럭시 익스프레스'(2020, 단채널 영상, 10분 56초, 가변 크기). 첨단 라이다 기술과 열화상 카메라가 담은 이미지를 융합해 인간 눈의 효용성을 질문하며 미래의 인지방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바라캇 컨템포러리 제공.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 아르고스는 100개의 눈을 지니고 있다. 머리부터 발까지 온 몸에 눈이 들어찬 모습이다. 그런데 아르고스는 감시자다. 그 많은 눈, 뛰어난 감각기관은 '자비'가 아니라 '감시'를 상징한다.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발전은 인간이 상상속에서만 그리던 다중의 감각기관을 지닌 존재를 현실 속에 탄생시키고 있다. 사이보그든 로봇이든 그 존재가 지닌 다중의 감각기관이 '자비'가 될지 '감시'가 될지는 불명확하다. 그 불확실성이 인간을 불안하게 만든다. 미래를 유토피아로, 다른 누구는 디스토피아로 보는 이유다.

주목받는 미디어 아티스트 양아치(본명 조성진)가 바라캇 컨템포러리(서울 삼청로)에서 작품전 '갤럭시 익스프레스(Galaxy Express)'를 열고 있다. 조각과 영상, 설치 등 신작 20여 점을 통해 가까운 미래 세상을 펼쳐보인다. 다가오는 그 세상 속에서 인간의 존재 의미를 두루 살펴보게 하는 자리다.



보라색이 강조된 '갤럭시 익스프레스' 전 전시장 전경 일부. 바라캇 컨템포러리 제공.

전시장은 쉽게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낯선 작품들의 이질적인 조합을 보여준다. 사이보그같은 커다란 몸체, 여러 개의 동공을 지닌 어린아이 얼굴, 갖가지 기호가 새겨지고 낯선 광물들이 박힌 작품들이 놓였다. 수많은 광물 중 가장 다양한 결정형태를 지녀 ‘천의 얼굴’이라고 불리는 방해석으로 만든 소품도 있다.

미래가 아닌 저 먼 옛날 태초의 자연을 떠올리게 하는 사슴뿔, 영지·말굽 버섯 등도 보인다. 심지어 불상의 손, 성모 마리아상같은 종교적 상징물도 다양한 감각기관을 가진 변형된 모습이다. 황동을 주재료로 한 조각들은 번쩍이고 매끈한 질감이 익숙하지 않다. 여기에 전시장 벽 등을 보라색으로 강조해 낯섬을 한층 강화시키는 전시공간의 연출이다. 시나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인체와 기계, 우주만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미래의 ‘초연결 사회’를 은유하는 전시다.

초연결 사회를 구성하는 조각들의 상당수는 공통점도 있다. 다른 차원까지도 볼 수 있는, 세상을 다르게 보는 확장된 눈이란 감각기관을 지닌 것이다. 작품 ‘사르트르, 외사시, 10개의 눈, 사물’을 비롯해 작가가 ‘사르트르의 연대기’로 명명한 작품들이 대표적이다. ‘파티마 성모 마리아, 1000개의 눈, 사물’, 불상의 손을 차용한 ‘10개의 수인, 연결된 사물’ 등도 마찬가지다.

미래 세상은 지금까지의 세계를 이룬 인간의 지각과 인지의 방식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실제 전시장에는 관람객이 들고 다니며 작품을 감상하는 또다른 눈이 있다. 크리스탈 렌즈로 만든 작품 ‘당신의 새로운 눈’이다. 이를 통해보는 작품은 눈으로 볼 때와는 확연히 다르게 다가온다. 작가는 “지금까지 ‘일하는 손’을 가장 아름답다고 칭송했다면 앞으로는 ‘기도하는 손’이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다. 가장 원초적인 본래 인간의 모습,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간절한 염원과 이를 위한 역할 등을 뜻하는 것으로 읽힌다.



양아치의 '사르트르, 연결된, 신체, 사물'(2020, 황동 주물·광물·자석, 26×64×36cm). 바라캇 컨템포러리 제공.

조각과 사운드로 구성된 설치작 '클라우드 9'는 초연결 사회를 가능케하는 기술이자 시공간 제약이 없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작품화했다. 작품명을 통해 작가는 클라우드 컴퓨팅 세계의 양면을 암시한다. '클라우드 9'는 단테의 <신곡>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마지막 9번째 단계에서 유래한 말로 행복의 절정을 뜻한다. 하지만 중국의 텐망(天網)처럼 '빅 브라더' 사회를 낳는 각국의 감시시스템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작품은 사운드도 송출하는데, 우주선이 채집한 우주 공간의 잡음과 혜성의 소리 등을 편집한 것이다.

영상작품 '갤럭시 익스프레스'는 최첨단 라이다(LiDAR) 기술과 열화상 카메라를 융합했다. 라이다는 렌즈 없이 데이터만으로 3D 이미지를 생성한다. 자율주행 등의 핵심기술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더이상 인간의 눈과 같은 렌즈가 필요없음을 뜻하는 기술이다. 도시 풍경 영상을 담은 작품은 디스토피아적 느낌의 차가운 라이다 이미지와 열화상 카메라의 화려한 색감·뜨거운 이미지를 겹쳤다. 인간의 눈같은 인지방식의 효용성을 묻는 한편으로 이젠 데이터 소유자가 가질 '막강한 힘'을 떠올리게 한다.



'갤럭시 익스프레스' 전 전시 전경 일부. 바라캇 컨템포러리 제공.

작가는 미래 세상을 유토피아, 디스토피아의 이분법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중층적 의미를 녹여 시각화한 작품들로 여러 가능성, 잠재성을 드러낼 뿐이다. 명확하게 규정짓지 않은 미래는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전시를 저마다의 관점으로 감상·해석하는 여지를 남긴다. 불확실한 미래야말로 인간의 존재 의미, 인간이 만들어 가야 할 세상을 더 진지하게 사유하고 모색하게 한다. 흥미를 자극하는 전시는 지금의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 세상의 주인이 아르고스일까 천수관음보살일까 묻는 듯하다. 전시는 12월 27일까지.